

## 애국 충절의 고장, 홍성을 찾아서

강 욱  
자유기고가

홍성(洪城)은 불굴의 의지와 투혼으로 나라를 지킨 뛰어난 역사적 인물을 많이 배출한 충절의 고장이다. 홍성군은 우리 나라의 전형적인 시골 모습을 그대로 지닌 곳이다. 그리 크지 않은 면적으로 높은 산이나 큰 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평선이 보이는 넓은 들이 있는 것도 아니다. 야트막한 산과 언덕으로 논밭이 이루어진 평범한 땅이다. 것처럼 여기에 기대어 살아가는 주민들의 마음씨도 순박하다. 느리고 부드러운 충청도 사투리에서 오순도순한 인정이 느껴지는 충청도 중의 충청도가 홍성이다.

충남 서해안의 중간에 위치한 홍성은 서산~홍성~대전으로 이어지는 도로망과 천안~홍성~장항으로 연결되는 장항선 철도의 중간지점으로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가 된다. 홍성은 후백제의 견훤과 고려 왕건이 남과 북에서 서로 세력 확장을 위해 다투

던 경계지역으로 많은 전란을 겪었다. 왕건은 934년 3월 유금필과 함께 충남의 운주(홍성)를 공격하여 운주성을 함락시켰다. 고려가 운주 공략에 성공하자 웅주(공주) 이북의 30여 성(城)이 자진 항복해 와 현재 충청남도의 대부분이 고려의 영역에 속하게 되었다.

홍성군에는 동남부와 서남부에 산 여러 개가 밀집해 있으며 그 두 지역의 한가운데를 여러 하천이 흘러 지나간다. 동쪽으로는 봉수산, 서쪽으로는 백월산, 남쪽으로는 오서산, 그리고 북쪽으로는 용봉산이 솟아 있는 분지형태를 취하고 있다. 거개가 낮은 산으로 이루어진 이 군에서 높이가 790미터인 오서산이 가장 높은 산으로 꼽힌다. 그래서 이 산은 서해안을 향해하는 선박의 나침반 구실을 하기도 한다. 활엽수림으로 뒤덮인 오서산에는 내원사와 정암사 같은 옛 절이 남아있다.

금마천, 청광천, 와룡천 등 서해안으로 흘러내리는 여러 하천으로 비옥한 농토를 이룬 흥성은 예로부터 논농사가 발달되었다. 그러나 흥성군에서 가장 흔한 것은 한우와 닭과 돼지다. 흥성은 아주 오래 전부터 한우, 돼지, 닭을 많이 키워 전국 제1의 축산단지로 꼽히고 있다. 특히 한우고기와 갈비는 전국 생산량의 6%를 점유하고 있으며 타 지역보다 육질이 월등하고 담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의 양계는 서울의 달걀 값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산업이다. 그래서 지난 70년대 말처럼 계란 값이 크게 떨어져 엄청난 손해를 입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돼지 사육의 경우도 이와 비슷해 돼지 값 등락에 따라 이곳 농민들은 희비가 엇갈리기 일수였다.

광천읍은 강경읍과 더불어 충청남도의 대표되는 상업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곳에 알부자들이 많아 “관청 많은 흥성에 가서 아는 체하지 말고 알부자 많은 광천에 가서 돈 있는 체하지 말아라”는 말이 있었다. 광천읍이 이와 같이 상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서해안에 있는 대부분의 섬 주민들이 배를 타고 광천읍 웅암포에 들어와 이곳 장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곧 보령군 원산도를 비롯한 여러 섬과 서산군 안면도의 주민들은 갖가지 해산물과 어패류를 가지고 광천장에 와서 팔거나 생활 필수품으로 바꾸어 갔다. 따라서 광천은 줄곧 인근 서해안 섬 주민들의 생활 중심지 구실을 해 온 셈이다.

광천장에서 예전만큼의 활기는 찾기 어렵지만 광천장의 명물인 광천 새우젓은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어 지금도 시장에는 큰 드럼통에 새우젓을 가득 담아 길가에 내놓고 흥정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광천에서 새우젓 장터가 선 것은 고려 때 물물교환으로 매매가 형성되었던 때부터라고 한다. 웅암포구의 새우젓 장은 조선시대 말 번창기에는 서해안의 10여개 섬에서 새우를 잡은 선박들이 광천장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광천 새우젓이 유명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곧 이곳 사람들의 간을 맞추는 솜씨가 좋기 때문이며, 또 광천읍 웅암포마을 북편에 독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서 흔히 독바위 또는 독배라고 불리는데 이곳에 새우젓을 익히고 보관하는 토굴이 있어서 새우젓의 맛과 빛깔이 좋기 때문이다. 이 토굴은 늘 섭씨 15도에서 17도까지의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젓갈의 맛이 은근하고 깊어 다른 지방에서는 흉내낼 수가 없다. 한 사십년 전에 이 마을 사람이 폐광된 금광 갱 속에 새우젓 통을 넣어 두었다가 나중에 꺼내 보니 맛이 좋아 시작된 이 토굴 저장법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독배에는 이런 토굴이 오륙십 군데가 있으며, 보통 굴 하나에 새우젓을 담은 큰 드럼통이 천 오백개에서 이천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 ‘광천 토굴새우젓’은 한때 전국 새우젓 생산량의 오륙십 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대단했다. 새우젓 때문에 독배는 예로부터 잘사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흥타령」에 “광천 독배로 시집 못 간 요 내 팔자야”라는 구절이 들어 있을 정도이다. 지금도 김장철이 되면 ‘광천

토굴새우젓’을 사기 위해 전국에서 상인과 소비자가 몰려들어 성시를 이루고 있다.

이 군에서는 예로부터 뛰어난 역사적 인물이 많이 났다. 그 중에서도 최영, 성삼문, 김좌진, 한용운 등이 특히 기억될 만한 인물들이니 홍성은 이 네분의 이름만 가지고도 이 나라의 가장 훌륭한 고을일 수가 있다. 초등학교 음악책에도 나와 있듯이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말로 유명한 고려 말기의 장군 최영이 홍북면 노은리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지금은 그 터만 있을 뿐 흔적을 찾을 길이 없고, 다만 노은리 뒷산의 삼봉산 위에 사당이 있어 그 위패를 모시고 있다. 여러 난을 제압하고 홍건적과 왜구를 무찔렀던 그는 일흔세살에 이성계의 모략으로 죽었다.

그로부터 102년 후인 1418년에 홍북면 노은리의 같은 장소, 같은 집에서 또 한 사람의 인물이 태어나니 그가 성삼문이다. 최영 장군의 생가가 어떻게 하여 성삼문의 외가인 박씨 가문의 손으로 넘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노은리가 성삼문의 외가 동네이고 여기서 태어난 것 또한 사실이다. 성삼문은 의로운 학자요, 충신이었다. 그는 학자적 역량 이외에도 옳은 일에 목숨을 아끼지 않는 절개와 기상을 가졌으니 단종을 위해 충성을 다 바쳤던 사육신의 주동자라는 것이다. 최영, 성삼문 두 분이 모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직계 후손이 없는 것도 같은 운명이다.

홍성군의 전신인 홍주부는 본디 유림의 세력이 뿌리 깊던 곳이었다. 그래서 근세에 들어와서 외적이 침입해 나라가 위태로울

적마다 의병이 봉기하여 많은 피를 흘린 고장이다. 홍성은 1894년 동학혁명군의 전투지였으며 1906년에는 항일 의병 전투가 발발했던 곳이다.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일어난 봉기는 규모가 커 이때에 홍주성에 입성한 의병의 수효는 몇천명을 헤아렸다. 홍주성 싸움에서 관군과 일본군은 예산 쪽으로 달아나다가 다시 의병의 공격을 받아 격파되었다. 그러나 홍주성의 동문이 그들의 대포에 의해 깨어져 전세가 뒤집혔고 시가전에서 끝까지 항전을 한 의병 몇백명이 죽었으며 팔십명쯤이 포로로 잡혔다. 홍주성에서 겨우 도망쳐 나온 몇몇 의병 대장들도 거개가 잡혀서 멀리 유배되거나 죽음을 당했다.

이 싸움에서 죽은 의병 몇백명의 주검은 대교리 일대의 냇가와 남산 일대에 흩어져 있었다. 이 주검은 총독부에서 파묻은 뒤로 한 마흔해 동안이나 버려져 있다가 1949년에 한 농부가 나무를 하다가 우연히 많은 유골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바로 의병들의 유골임이 밝혀졌다. 확실한 수효는 알 수 없으나 구백명쯤으로 짐작되어 ‘구백의총’으로 이름을 붙여 무덤을 만들고 지방문화재 사적 32호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1910년에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뒤에도 이곳에서는 독립 활동이 끊임없이 계속되었으며 특히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대표가 되는 사람으로 한용운과 김좌진을 들 수 있다. 만해 한용운은 1879년에 결성면 성곡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여섯살에 마을의 서당에서 한문교육을 받았는데 무슨 책이고 한번 보면 잊어버리는 일이 없어 천재

로 소문이 났었다. 그가 열다섯살이었을 적에 동학혁명이, 스물다섯살이었을 적에 을사조약이 이루어졌고 서른한살이었을 적에 나라가 제국주의 일본에 강탈당했다. 그만큼 그가 산 시기는 격동기였다.

그는 「조선불교 유신론」의 저자로 불교개혁과 대중화에 힘썼으며 문학사에 길이 남는 시집 「님의 침묵」을 펴내기도 했다. 한용운은 또 여러 차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살이를 했으며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사람으로 독립선언서의 공약 3장을 썼다. 성곡리의 한가한 시골마을에 한용운의 생가가 복원되어 있다. 조출한 초가집이 삭정이 울타리로 둘러져 있어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한대법륜(韓大法輪)’이란 현판은 만해의 글씨다.

만주벌판을 호령하며 우리 독립군을 이끌던 김좌진은 1889년에 갈산면 행상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일곱살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재주가 비상해서 얼마 가지 않아 「삼국지」와 「수호지」를 읽을 수가 있었다. 힘도 장사여서 동네 아이들과 같이

전쟁놀이를 하면 저보다 나이가 위인 아이들의 대장노릇을 했다. 어린 시절에 흥성에는 의병 활동이 끊임없이 일어났는데 이런 것들이 그를 혁명가로 만든 바탕이 되었는데도 모른다. 김좌진은 1920년 10월 독립군 정예부대를 편성하여 ‘청산리 싸움’을 벌였는데 일본군 3,000명과 사흘동안 계속된 싸움에서 연대장 가노 대령과 1,200명을 죽여 세계 유격전 역사에 보기 드문 큰 승리를 거두었다. 갈산면 행상리에 그의 생가가 보존되어 있어 장군의 행적과 체취를 느낄 수 있다.

흥성군에 있는 유형 문화재로는 홍주성, 구백의총, 고산사 대웅전, 동문동 당간지주, 신경리 마애석불 등을 들 수 있다. 사적 제 231호로 지정된 홍주성은 풍수지리설이 말하는 것처럼 천둥이 땅에 떨어지는 형세여서 그런지 예로부터 싸움을 많이 치렀다. 왜구의 열여섯번에 걸친 침입, 최향의 반란, 이몽학의 반란, 동학혁명, 항일 의병 전쟁 같은 따위를 겪었다. 성안에 있던 관아도 36채에 이르렀으나 지금은 홍주아문, 동헌, 여하정의 3채와 조양문만 남아 있다. 